

색다른 매력의 다양한 영화를 만나다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획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독립영화관은 최근 개봉한 영화 '프랑스 여자'의 김희정 감독을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 광주극장은 코로나 19로 아쉽게 막을 내린 독립영화들을 다시 상영한다.

광주독립영화관이 올해 다섯 번째 기획전으로 '김희정 감독전'을 준비했다. 기획전은 8~10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리며 김 감독의 전작을 통해 그의 영화세계를 살펴보는 자리다.

상영작은 김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열세 살, 수아' (8일 오후 5시 30분)를 비롯해 '청포도 사랑: 17년 전의 약속' (9일 오후 5시 30분), '설행-눈길을 걷다' (10일 오후 5시 20분), 그리고 최근 개봉작인 '프랑스 여자' (10일) 등 총 4편이다

'열세 살, 수아'는 열세 살에 아버지를 여윈 사춘기 소녀 수아가 '진짜' 엄마라고 믿는 가수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으며 '청포도 사랑: 17년 전의 약속'은 고교시절 친했던 세 명의 친구 중 한 명이 사고로 죽고 난 이후, 산 자들이 어른이 되어 펼쳐지는 이야기다.

'설행-눈길을 걷다'에는 '기생충'의 박소담이 출연해 눈길을 끌며 영화는 곁에 있던 누군가를 떠나 보낸 뒤의 상실과 남겨진 이의 극복을 그렸다.

폴란드 우츠 국립영화학교에서 연출을 전공한 김 감독은 재학시절 연출한 '아버지의 초상', '만남', '언젠가...' 등의 단편영화들로 두각을 나타냈다.

장편 데뷔작인 '열세 살, 수아'는 칸 영화제 신인 감독 지원프로그램인 '레지던스인 파리'에 선정됐고 '청포도 사랑: 17년 전의 약속'은 칸 영화제 레지던스 10주년 기념 프로그램에 초청되는 등 국제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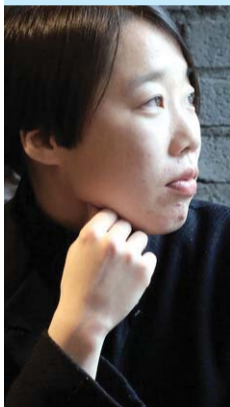
10일 오후 7시20분 '프랑스여자' 상영 후에는 김희정 감독과 관객들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되며



김희정 감독

광주독립영화관, 김희정 전작 상영 '설행...' 등, 10일 관객과의 대화도

광주극장, '언택? 컨택! 필름 파티' 11~18일, '바람의 언덕' 등 6편



이길보라 감독



'파도를 걷는 소년'



'프랑스 여자'

진행은 문학평론가 신새별이 맡는다.

'김희정 감독전' 상영작 중 최근 개봉한 '프랑스 여자'를 제외한 세 작품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광주극장은 한국독립영화 6편을 상영하는 '언택? 컨택! 필름 파티 (Untact? contact! film party)'를 11~18일 광주극장에서 연다.

'작은 빛', '기억의 전쟁',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장', '바람의 언덕', '파도를 걷는 소년' 등이 관객과 만난다.

'작은 빛'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마주하는 모습을 그린 가족 드라마이며, '기억의 전쟁'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았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큰 역경 앞에서 자신만의 생각과 방식대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찬실의 삶을 조명하며, '이장'은 오랫동안 집안에 뿌리 박힌 가부장제와 차별을 위트 있고 날카롭게 그렸다.

헤어졌던 엄마와 딸이 다시 만나 서로를 위로하며 일어서는 내용인 '바람의 언덕', 제주에 사는 이주노동자 2세 소년 김수의 이야기를 담은 '파도를 걷는 소년'도 상영된다.

기획전 기간 동안에는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 (GV)도 진행된다. 11일 오후 7시10분 '파도를 걷는 소년' 상영후에는 최창환 감독과 배우 박민규, 김해나가 관객과 만나며, 14일 오후 3시 '기억의 전쟁' 상영 후에는 임인자 독립기획자의 진행으로 이길보라 감독과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시간표는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를 참조하면 된다. 마스크 필수 관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CC, 편의시설 운영 사업자 입찰 26일까지 접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은 문화전당 내 편의시설을 운영할 '국유재산 사용·수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입찰 공고한 '편의시설'은 문화전당 내 문화산업 투자유치 대상 공간으로 연면적 2669㎡에 이르는 규모다. 문화산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공간별 용도는 별도 지정하지 않았다.

편의시설의 사업자는 공간의 임차와 용도개발, 입주 업체 선별과 유지, 서비스 품질관리, 홍보와 마케팅, 경영관리 등 편의시설 전체를 포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ACC는 가격입찰(10점)과 제안서 평가(90점) 후 협상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낙찰자는 계약일부부터 5년간 해당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규정에 따른 심의와 협의 등을 거쳐 추가로 운영할 편의시설용 공간(1976.95㎡)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입찰을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월요콘서트-베토벤시리즈' 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 문화재단 '2020월요콘서트-상반기 베토벤시리즈' 네 번째 무대가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강숙자 <사진>오페라라인이 출연해 '베토벤의 사랑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무대를 선보인다.

레퍼토리는 '신의 영광', '먼곳에서 부르는 노래', '꽃물들인 리본으로', '그대를 사랑해', '말해주고 내 사랑 날 사랑한다고', 오페라 'Fidelio' 중 '야당신과 함께한다' 등이다.

이날 공연에는 소프라노 강숙자·소프라노 윤하나·사운정, 테너 김정규, 바리톤 박성훈, 피아노 이지은이 출연한다.

강숙자오페라라인은 2001년 제1회 창단공연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기 오페라 및 갈라 콘서트, 뮤지컬, 찾아가는 음악회 등 수백 회의 공연을 기획해온 팀이다.

월요콘서트 다섯 번째 공연은 선클라비어의 '베토벤 나빌레라'로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000원. 선착순 60명, 마스크 착용 필수.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무겁지도 가볍지도'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이인성 초대전, 15일까지 30여점 전시

1996년부터 열리고 있는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지역 젊은 작가들을 발굴·지원, 지역 미술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다.

미술제는 수상작가들에게 상금과 함께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선보이는 개인전 개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자인 서양화가 이인성 초대 개인전이 오는 15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무겁지도 가볍지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2020년 신작을 중심으로 독특한 화풍의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현실적인 삶의 모습과 가상 공간을 한 화면에 연극적으로 재구성해 담아내는 이 작가의 작품은 무엇보다 궁금증을 자아낸다.

개인의 사건과 경험들을 은유적으로 재구성한 그의 작품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스토리를 들려주지는 않는다. 뗏목을 타고 항해하는 탐험가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원시적인 공간에서 나무를 심는 이의 모습으로도,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으로도 등장해 관람객들이 상상 속에서 함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길 바란다.

이 작가의 작품을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간결한 붓터치가 인상적인 풍경과 인물 묘사, 그리고 그림 속에 항상 등장하는 '주황색 점' 덕분이다. 한 개에서부터 수십 개까지 화면 속에 자유분방하게 등장하는 주황색 점은, 작가에 따르면 개인이 추구하고자하는 삶의 가치관 또는 욕망의 대상을 상징하는 기호로 화면 전체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

작가는 "주황색 점은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자, 꿈을 상징한다. 그림 속 인물들의 모습과 함께 그 '점'들을 통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상을 하고, 내가 살아 가면서 추구하는 게 뭔지,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한다.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한 이 작가는 지난해 광주미술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2017 빛' 참여작가로 선정됐다.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 스튜디오, 일본 코카네퍼블 레지던스 입주작가로도 활동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름날의 수확'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